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7주년을 맞이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당당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의 혁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더욱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중받은 아이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차별하던 비교육적인 관습으로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키우는 교육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이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사랑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할 때 서로 존중받는 인권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자율과 자치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완성합니다.

학교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학교는 발전합니다. 또한, 서로가 배려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을 이어갈 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17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이하여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